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

가족과 로인 주제 미니영화 출품

- 미니영화 《우리는 갈라졌어요》·《최후의 숙원》 시영식



미니영화 《우리는 갈라졌어요》의 한 장면



미니영화 《최후의 숙원》의 한 장면



▲ 미니영화 출품에 참가한 배우 및 제작진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 '3.8' 국제부녀절 현제작으로 만든 두 편의 미니영화 《우리는 갈라졌어요》와 《최후의 숙원》 시영식이 3월 10일 오전 연길시 한성호텔에서 있었다. 지난 음력설을 계기로 올 들어 첫 미니영화인 《장애인의 웃음소리》를 선보인 데 이어 또 두편의 미니영화 출품이다.

미니영화 《우리는 갈라졌어요》는 남녀주인공의 따뜻하고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병환에 있는 남자주인공이 장차 자신이 장애자로 되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이 될 것을 생

각해 그녀를 매정하게 대하면서 결국엔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선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갈라짐을 선택해야 하는 남자주인공의 감동과 눈물의 연기가 돋보인다.

《최후의 숙원》은 오늘날 여러가지 원인으로 황혼기에 갈라지는 로인들의 사회 현실과 급진육에 그릇된 삶의 신조로 허둥대는 젊은 계층의 가슴 아픈 사회적 현실 문제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사색의 여운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미니영화 《우리는 갈라졌어요》의 이야기는 연변영화드라마애호

가협회 손룡호 회장의 친동생인 손룡섭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고 영화의 출연 역시 손룡섭이 맡아서 감동을 선물했다.

소설가 흥전룡은 시영식 영화평에서 미니영화들이 사회 현실적인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정감이 무엇인가를 반영했으며 감명 깊은 세부들로 잔잔한 감동에서부터 큰 감동을 이끈 것이 특점이라고 지적,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의 영화들이 한걸음 한걸음 성숙해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손룡호 회장은 '3.8' 국제부녀절 등 특정 명절들을 맞으면서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는 줄곧 감동과 이야기가 있는 현대 영화들을 만들어왔다면서 협회 회원들이 긴박한 촬영 시간과 자금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애써 극복하면서 힘을 모아 새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를 사랑하는 협회 회원들의 일편단심과 영화를 위해서 사심없이 기여하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연변 영상영화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심심과 용기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 안상근기자

길림성 작가 고춘양, 중국 미니소설 년도상 수상

최근 중국미니소설학회는 제 21 회 중국 미니소설 년도상(2022) 선정 수상 정보를 발표했는데 길림성 작가인 고춘양의 소설 〈석두기·로사터우〉(石头记·老沙头儿)가 3 등상을 수상했다.



고춘양은 중국작가협회 회원, 로신문학원 제 17기 고급연수반 학원, 길림성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리사, 돈화시작가협회 부주석이다. 그는 시집 《오월의 방비》, 산문집 《몸을 돌리면 이미 천애》, 《좌우사이》, 《안명호의 사랑》, 장편소설 《현무현생》, 《람도》, 《대일무지개》 등을 발표했으며 그의 작품은 《문예보》, 《시탐구》, 《소설선간》, 《작가발견》 등에 실리기도 했다. 〈석두기·로사터우〉는 《천지 미니소설》 2022년 제 9기에 처음 실렸으며 고춘양은 이 소설로 국가급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의는 중국미니소설학회가 지도하고 강소성 진강시 당위 선전부, 진강시문학예술계연합회, 진강시문예매체그룹이 주최했는데 1 등상 1 편, 2 등상 3 편, 3 등상 5 편을 평의했다. 평의에 참가한 작품들은 전국 신문 간행물에 발표된 만여편의 미니소설 가운데서 일부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전문가심사위원의 투표를 거쳐 50 편의 지명상을 산생하고 매체의 공시를 거친 후 다시 세밀하고 엄밀한 평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함으로써 수상 작품의 대표성, 권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평의에 참가한 작품들과 수상 상황을 보면 이번 중국 미니소설 년도상에 선정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질이 높고 작품 풍격이 더욱 다양해졌다. 수상한 작가들은 미니소설계에서 명성이 높은 유명 작가도 있고 최근 몇년 사이 두각을 나타낸 실력 작가도 있어 일정한 정도에서 현재 중국 미니소설의 창작 수준과 발전 현황을 대표했다.

‘농촌음악제’, 연간 100 회 펼친다



‘성도 농촌음악제’가 3월 5일 사천성 성도시 온강구 만춘진에서 개막되었다. 매년 2월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24 절기의 중요한 시점을 선택해 100 회 가까운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개막식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교향악단.

/ 신화넷

AI 시리즈 애니메이션 《천추의 명시》 제작



▶ 달과 갈바닥으로 맑은 물결 가르네

중국 최초의 문자 기반 생성 AI 시리즈 애니메이션 《천추의 명시》(千秋诗颂)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중앙방송총국 CCTV 종합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

중앙방송총국이 AIGC 기술로 제작한 이 6부작 AI 애니메이션은 전국 모든 위성채널 동시간 방영 애니메이션 선종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인기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한국어 버전 《천추의 명시》- 〈거위를 읊다(咏鹅)〉의 한 장면(영상 캡처)

중앙방송총국이 본사의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빙(配音)한 6부작 애니메이션 《천추의 명시》다어종 버전도 곧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AI 애니메이션 《천추의 명시》는 국가통일판 중국어 교재에 나오는 고대 명시들을 아름다운 중국풍의 영상으로 펼쳐보고 있다.

/ 중국국제방송넷

‘중의약 박물관’ 설립, 중의약 문화 전승·보호하자

전국적협 위원이며 북경중의약대학 교수인 장기성은 이번 량회에 중의약 박물관 활성화와 ‘중의약의 생활화’를 건의하면서 중의약 문화 전승·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중의약 관련 박물관은 83 곳이다. 장기성교수는 중의약 박물관 체계가 안정하지 못하고 박물관과 로자호(老字号·오래된 전통 브랜드)·무형문화유산 사이 연동메커니즘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중의약 박물관 설립에

관한 심사 비준 작업에 박차를 가해오는 2025년까지 국가 중의약 박물관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자고 건의했다. 이어 “중의약 로자호에는 독특한 전통 기술과 비즈니스 정신, 의외로서의 도덕성과 신념이 남아있다.”면서 “중화 로자호 중의약 박물관”을 설립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물관과 중의약 무형문화유산 지간의 연동 메커니즘 구축을 건의했다. 또 중의약 무형문화유산 문화 창의 상품을 개발하고 중의약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작업실을 설립해 중의약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보호

하자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는 “사실 중의약 박물관이 많고 소장된 문물도 풍부하지만 자금 부족, 문물 보호 기술 부재, 박물관 운영 경험이나 전문팀 결여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사실 중의약 박물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잘못된 섭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중의약의 생활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중의약 생활화’ 보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 상해중의약박물관에서 구리로 만든 침술 인체모형을 살펴보는 외국 관광객

전통혼례로 치른 합동결혼식

중경시 동남구민정국과 사천성 수녕시민정국의 주최로 지난 9일 중경시 동남구 송강진에서 전통혼례의 합동결혼식이 치러졌다. 동남과 수녕의 신혼부부 28 쌍이 가족, 친지와 현장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사진은 전통 합동결혼식 현장.

/ 인민넷



한부의 흥행 영화의 매력, 복싱열로 이어지다

- 대중매체로서의 영화의 영향력 과시

영화 《뜨거운 인생》(热辣滚烫)의 흥행으로 복싱(拳击)클럽과 헬스장이 북적이고 스포츠 소재 영화도 덩달아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 가령은 실제로 영화를 위해 20 키로그램을 증량했다가 50 키로그램을 감량했다.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복싱을 통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재건되며 관객에게 쾌감을 선사한다.

일선 상해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체육관은 열기로 차넘쳤다. 밤 8시 30분, 수감생 여럿이 비오듯 땀을 흘리며 모래주머니를 치고 있었다.

“최근 복싱장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난 2년간 매주 평균 2회씩 복싱장을 찾은 변호사 류샤샤는 영화 《뜨거운 인생》의 흥행으로 복싱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복싱을 하면서 확실히 활력이 생기고 건강감진 결과도 좋아졌다.”면서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스포츠에 비해 대결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복싱은 꾸준히 하기가 더 쉬워 좋은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뎬에 따르면 영화 개봉 이후 ‘복싱’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8.4% 급증했다. 대중 평가 검색량과 맞먹는듯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7.2%, 337.53% 늘어났다. ‘성인 복싱’, ‘복싱 레슨 체험’, ‘복싱 월 사용권’, ‘녀성 복싱’ 등 키워드 검색량도 전년 동기보다 11 배 이상 확대되었다.

영화의 인기로 힘입어 전국적으로 ‘복싱 수업권’ 공동구매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메이뎬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화 개봉 이후 천진, 북경, 상해의 복싱 수업권 공동구매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92.59%, 164.34%, 149.86%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무술격투’, ‘헬스센터’, ‘스포츠 트레이닝’ 등 건강양생 관련 주문도 모두 급성장하며 주문량이 각각 232.82%, 439.59%, 255.56% 늘어난 것이다.

복싱·헬스 시설들은 영화 흥행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일부 복싱장은 영화관과 협력해 더 많은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행사를 벌이고 있다.

온주시의 권월복싱스튜디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용한 영화 티켓을 워치 모멘트와 대중 평가에 인증하면 1회 무료 복싱 레슨권과 교환해준다는 공지를 올렸다.

상해 무덕파이프팀 책임자는 영화관과 공동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영화 티켓으로 복싱 레슨할인이나 무료 체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복싱은 격렬한 대결 스포츠이므로 단순히 시세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복단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도건길은 “대중매체로서의 영화는 뉴스 전파의 관점에서 의제 설정의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는 단기적으로 특정 인물과 주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양생 등 생활방식을 어느 정도 이끌고 있다.”고 부연했다.

/ 신화넷